

SONGDO



CHEONG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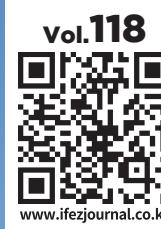


YEONGJONG



아무것도 없던 땅,
그 위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뤄낸 찬란한 결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Vol.118

www.ifezjournal.co.kr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거진
제118호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4년 7월 19일
발행호
통권 제118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홍보팀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저널 웹진
ifez.go.kr/journal



GO! 웹진
www.ifezjourna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NTENTS

BUSINESS	04	VISION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시티’를 꿈꾸는 IFEZ의 신성장프로젝트를 살펴보다
	08	TOPIC	투자유치 주요소식
	12	BOARD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 활동
	16	SPECIAL INTERVIEW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태준 총장
	20	SPECIAL ISSUE	바이오제약 혁신과 시너지를 주도하는 바이오클러스터
PARTNERS	24	INFO	IFEZ 내 인구통계 현황 꾸준한 유입과 꾸준한 상승
	26	WITH US	입주기업 ‘버시스(VERSES)’ 탐방 인천스타트업파크 소식
LIVING&CULTURE	32	COMMUNITY	IFEZ 커뮤니티 소식 한 눈에 보기
	34	TRIP	뜨거운 여름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 : IFEZ 전망대 투어
	38	CULTURE	아트센터인천 여름의 What’s on?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42	EVENT	일상 한 컷 / 랜드마크 퀴즈



GLOBAL BUSINESS HUB CITY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시티’를 꿈꾸는

IFEZ의 신성장프로젝트를 살펴보다

IFEZ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시티를 꿈꾸며, 2가지 목표 지향점이 있다. 송도·영종·청라가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것, 글로벌 Top10 도시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IFEZ의 신성장 프로젝트’를 지금 만나보자.



※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IFEZ의 성장 동력, ‘연동개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나라 첫 경제자유구역(FEZfree economic zone)으로 지정된 IFEZ.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유치 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이다. 설립 당시, ‘상하야홍콩·싱가포르 같은 동북아 최대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IFEZ. 이와 같은 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전국에 총 9개의 FEZ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송도에 들어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는 어느 덧 국제도시로 자리매김 했고,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 실적은 147억 5,6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IFEZ 입주사업체는 현재 3,400개, 외투 사업체도 200개 이상 증가한 수치로 IFEZ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뤘는지 엿볼 수 있다.

이에 지난 2월 취임한 제8대 윤원석 IFEZ 청장은 “연동개발 방식이 그동안 IFEZ의 발전을 이끌었다. 연동 개발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공익시설과 함께 짓는 개발 방법이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도시에 꼭 필요한 공원이나 생활사회적간접자본(SOC)과 같은 공익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그동안 IFEZ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시설과 공익시설을 함께 짓는 ‘연동개발’ 방식을 택했고, 이에 스마트시티와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진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IFEZ의 미래를 봤을 때, 연동개발 방식은 더 큰 성장을



이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는 “연동개발의 경우, 주거 비중이 높아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IFEZ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AI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IFEZ는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6억 달러(약 8,025억 원)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였던 4억 달러(약 5,350억 원)보다 2억 달러(약 2,675억 원)가량 늘었다. 윤 청장은 올해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강화 △글로벌 투자 IR 확대 △데스티네이션 인천 전략 등을 앞세워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2023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

400 million dollar (약 5,350억 원)

+ 200 million dollar (약 2,675억 원)

2024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

600 million dollar (약 8,025억 원)

2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 FEZ(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실

IFEZ의 현재 개발률은 90%를 넘어섰다. 이에 바이오 특화단지 등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에 IFEZ는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을 신규 FEZ로 지정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IFEZ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단지가 부족하다. 강화 남단, 인천 내항 등에 대한 신규 FEZ 지정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역량을 집결해 임기 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내부 조직 경쟁력 강화

인천시는 현재 '글로벌 Top10 도시'를 향해 끊임없이 발돋움하고 있다. 윤 청장 또한 이러한 시의 방향에 발맞춰 임기 내에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그가 시도한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인 'IFEZ 비전·전략 2040 프로젝트'. 이는 공직자들이 직접 내적, 외적인 환경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비전과 전략을 직접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끌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또한 이에 윤 청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업하고,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을 수 있는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창조적 인재가 양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석 IFEZ 청장과의 일문일답



Q — IFEZ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IFEZ는 지난 2003년 8월 11일,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황량한 서해 갯벌을 매립해 글로벌 도시로 만든다는 건 그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IFEZ는 '송도, 영종, 청라'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본연의 업무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잘 이뤘던 것도 큰 성과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 환경이 위축됐지만, 2022년 대비해 10.7% 증가한 4억3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대형 글로벌 기업과 R&D기관이 들어섰고, 해외 한인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육성했다. 인천시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글로벌 Top10 도시'와 '제물포르네상스'를 성공하기 위해 IFEZ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다.

Q —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를 6억 달러로 정했다.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첨단 기업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글로벌 IR 기업' 유치 전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인천으로 모이는 '데스티네이션 인천 전략' 등을 수립해 올해 목표액인 6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원도심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투자도 이끌어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접촉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Q — 올 상반기 선정 예정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송도가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송도-남동산단-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Bio-Triangle)' 구축을 내세워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송도에 입주한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산업 육성 방향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Q —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 등 FEZ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IFEZ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하다. 송도가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우리 IFEZ에 특화단지가 들어서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현재 IFEZ의 개발률은 90%를 넘었다. 인천이 추구하는 4대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보면 글로벌 도시에 맞는 클러스터를 갖고 있다. IFEZ도 첨단산업, 미래모빌리티, 문화관광, 그린바이오, 자유도시라는 콘셉트로 글로벌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FEZ 추가 지정이 필수다.

TOPIC

of INVESTMENT ATTRACTION

한인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대, 송도에 ‘세계한인무역단지’ 조성 청사진 美 뉴저지서 ‘세계한인무역단지 & 글로벌한인문화타운’ 계획 발표

인천시가 한국으로 돌아올 재외동포들의 거주 공간인 ‘글로벌한인문화타운’에 이어 한인 기업인들을 위한 ‘세계한인무역단지’ 조성 청사진을 공개했다.



세계한인무역단지, 세계한인무역협회, 코트라, 인천상공회의소 등 총집합...한인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대

IFEZ는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5월 28일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교민들과 기업인들을 만나 ‘세계한인무역단지 & 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독일에서 공개한 ‘글로벌한인타운’ 조성 계획을 확대해, 한인 기업인들의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무역을 위한 ‘세계한인무역단지’ 계획이 공개됐다.

‘세계한인무역단지’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무역지원기관, 재외동포청 등 세계한인 관련 정부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비즈니스 기관 등이 총집합하고, 글로벌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한인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해 인천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시 및 아카데미 등 마이스 시설과

글로벌 창업센터(스타트업파크2) 등 관련 시설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손들을 양성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송도 6·8공구 아이코어시티 내 국제업무용지 약 9,500평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뉴욕지회 및 뉴저지지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 기업인들이 참석해 ‘세계한인무역단지’ 및 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사업 투자 및 입주에 대한 큰 호응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연 500만 명 찾는 뉴욕명소 ‘하이라인 파크’ 창업자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

이날 재외동포들과의 만남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뉴욕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의 로버트 해몬드(Robert Hammond) 창업자를 만나 도시 재생 선진 사례 노하우를 듣고 인천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로버트 해몬드는 버려진 철도를 없애고 빌딩을 지으려는 개발업자들의 계획에 대항해, ‘프렌즈 오브 하이 라인(Friends of High Line(FHL))’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창립, 버려진 철도를 공중 공원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곳은 한 해 약 5백만 명이 찾는 뉴욕의 명소로 재탄생했다.

유정복 시장은 로버트 해몬드와 하이라인 파크, 맨해튼에 조성된 도심개발사업지인 허드슨 야드 등 현장을 둘러보며,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개항의 도시이자 미래를 향하고 있는 도시”라며, “이번 하이라인 파크처럼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종하늘도시에 조성될 ‘항공복합문화시설’ 양해각서 체결 문화가 접목된 특별한 항공 도시 조성 스타트

**IFEZ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소유하고 있고,
지상 연계 교통망 및 항만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공복합문화도시의 최적지다.**

인천시·파나핀토·대한항공, 미국 뉴저지서 양해각서 체결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인투자개발사와 항공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항공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IFEZ는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지난 5월 29일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파나핀토(Panepinto), 대한항공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조셉 파나핀토 주니어(Joseph Panepinto Jr.) 회장, 대한항공 관계자, 디피인터내셔널 대표가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체결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및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파나핀토는 외국인 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종사자 주거·문화시설 조성 등에 협력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 도심지 개조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미화

10억 달러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투자 계획의 윤곽이 그려졌다. 사업부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10만 평 부지가 검토 중이며,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사업계획 수립,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이 실무 검토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 최고의 공항, 지상 연계 교통망 및 항만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유치에도 유리한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복합문화도시로 최적지”라며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이 항공 선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고 문화가 접목된 특별한 항공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01 영국상공회의소 대표단, IFEZ 방문

지난 5월 28일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영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IFEZ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IFEZ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견학을 통해 미래 산업을 조망하고자 마련됐다. 영국상공회의소(BCCK) 및 베이즈 경영대에서 국제금융, 경영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이들과 런던시티대학

교 베이즈경영대학원 MBA 학생 및 교수진 40여 명이 방문해 G타워부터 센트럴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IFEZ 도시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스타트업 육성 현장과 인천글로벌캠퍼스까지 직접 방문하며 IFEZ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창업 생태계까지 다방면으로 체험하고 미래 산업을 그려가보는 시간을 가졌다.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02 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 유정복 인천시장 만나 협력 논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개교 10주년을 맞아 한국에 방문한 그레고리 워싱턴(Gregory Washington) 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이 지난 6월 11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만남에는 워싱턴 미국 캠퍼스 총장 및 특별 보좌관 메건 힐리(Megan Healy)외에도 로버트 매츠(Robert Matz)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대표, 켈리 정(Kelley Chung) 입학처

및 정부협력처 겸임처장이 함께 했으며, 윤원석 IFEZ 청장,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이 배석했다. 워싱턴 총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하고 그간 한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이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 확장과 연구소 개소 등 확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IFEZ, 스타트업 본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주력

IFEZ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의 창업 허브도시인 독일 베를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IFEZ는 지난 10일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양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와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밋업(Meetup)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23년부터 베를린과 본격적으로 협력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지난해 베를린 대표단은 'IFEZ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에 해외협력도시로 참가, 스마트시티·스타트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 스타트업파크 '봄업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인천을 방문한 베를린 대표단은 베를린주 경제국, 베를린 파트너(스타트업 육성기관), 아시아베를린포럼(스타트업 자문기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미국 투자사, IFEZ 개발 프로젝트 투자의향 밝혀

IFEZ는 30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원석 IFEZ 청장이 글로벌 투자사인 이엠펜 벨스타(EMP BELSTAR)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펀드매니지먼트 기업인 이엠펜 벨스타는 이미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항배후단지에 LNG냉열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초저온복합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으로, 기업 대표인 다니엘윌 회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FEZ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원석 IFEZ 청장은 “이엠펜 벨스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사업지구의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투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FEZ, 영국 스마트 제조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성료

한국과 영국의 첨단 스마트제조 분야 유망 기업들이 IFEZ에 모여서 기술 교류와 부문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IFEZ는 지난 6월 21일 인천경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영국의 첨단 제조 분야 선발 기업과 IFEZ 입주 유망기업 등 22개 회사가 참여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영국 과학혁신처(Innovate UK)와 이들이 선발한 기업들이 스마트테크 코리아 참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라 IFEZ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IFEZ 입주기업 등 한국과 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발족한 영국과학혁신처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국의 기술자문단이자 정부기관이다. 참여한 회사는 초정밀 가공 업체 ‘마이크로브리트(Microbritt Ltd)’ 등 제조 서비스·소프트웨어 분야 영국 선발업체 11개사, IFEZ 관내 부품제조·소프트웨어 등 유망기업 11개사 등이다.



인천시-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캠퍼스 설립 양해각서 체결..순조로운 유치진행

인천시와 IFEZ는 23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 마크 스미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의 부총장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GC 내 영국대학 설립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지난 4월 설립 의향서 제출 이후 발빠른 사업 진행으로 MOU 체결이 성사됐다. 사우스햄튼대학은 영국 명문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되었으며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최초로 인가한 대학이다. 메인캠퍼스인 하이필드 캠퍼스, 웬체스터 캠퍼스, 말레이시아 캠퍼스 등 총 8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마크 스미스 부총장(Mark E Smith)은 “사우스햄튼대학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캠퍼스 설립 논의를 본격화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천시,美 메네스 음대 설립 양해각서 체결 ... 음악대학 설립 준비 순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메네스 음대(Mannes Schoool of Music)’ 인천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IFEZ는 지난 5월 28일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메네스 음대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메네스 음대의 모(母) 학교 그룹인 뉴스쿨(The New School)의 린다 라파포트(Linda E. Rappaport) 이사회 의장, 리처드 케슬러(Richard Kessler) 메네스 음대 대표, 윤원석 IFEZ 청장 등이 함께했다. 메네스 음대는 ‘뉴스쿨(The New School)’의 소속 대학으로, 1916년 데이비드 메너스(David Mannes)에 의해 설립됐다. 세계 1위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의 소속 대학 중 하나이다. 메네스 음대 확장캠퍼스는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설립을 추진 중이다.



IFEZ 혁신성장플랫폼, “상생협력 지역문화 만들자”

IFEZ는 2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비즈니스센터에서 ‘IFEZ 입주기업의 상생발전과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제12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혁신성장 플랫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FEZ 혁신성장 플랫폼은 입주기업·기관들이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지난 2021년 4월 첫 플랫폼 이후 11차례에 걸쳐 324개 기업·기관, 4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기업 대응 전략, 글로벌 기업 인재 발굴 및 육성, 탄소중립과 기업대응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제12회 IFEZ 혁신성장플랫폼에는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IFEZ 입주기업들의 상생협력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윤원석 IFEZ 청장도 함께해 소통의 깊이를 더했다. 특강을 맡은 한재선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전략팀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송도 내 대학교·송복(주), 문화거리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IFEZ는 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유정복 시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대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등 10개 대학 총장과 학생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문화거리와 연계한 상업용지(C1, C2) 사업 추진,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시 및 대학교 간 연합활동 추진,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편성 요청한 상태로, 용역비 수립 후 하반기에 착수하여 송도 내 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등과 함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협력·추진할 계획이다.

IFEZ 내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만나다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②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편



글.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별보좌역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는 겐트대학교. 어느덧 신입생 평균 충원율이 90%를 넘어섰고, 누적 졸업생 취업률도 94.2%에 이르며, 명문대로서 나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국제적,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주고 있는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별보좌역과 겐트대학교 한태준 총장이 만나 대담을 나눴다.

Q —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올해 8월, 개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지난 2014년 9월 벨기에 겐트대학교 최초의 해외 확장캠퍼스로 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8월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내에서 최초로 개교한 유일한 유럽대학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는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설립 초기 낮은 인지도와 홍보시간 부족, 국내 대학보다 100학점이나 더 많은 졸업학점 등으로 인해 개교 첫해 225명의 정원 중 53명의 학생만이 입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학교는 생명공학 연구에 특화된 시설과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홈 캠퍼스와 동일한 유럽의 선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우수 교수진 채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신입생 평균 충원율이 90%를 넘어섰고 누적 졸업생 취업(대학원 진학)률도 94.2%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교류 증진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논문 실적을 보유하는 등 세계 80위권의 유럽 명문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은 240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매진해야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학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세계 유수의 기관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Q — 겐트대학교 부설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연구소인 <마린유겐트 해양연구소>가 올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실사 및 설립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마린유겐트 해양연구소 개소를 통해 총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연구소 중 하나인 벨기에 겐트대학교 '마린유겐트' 유치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해 올해 8월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마린유겐트는 해양특화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특히 겐트대학교 본교 Tech transfer 기관 중 블루겐트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통한 유수의 해양 관련 기업 약 10개를 키워 낸 바 있습니다.

마린유겐트는 본교 교수 100여 명과 연구진 500여 명의 대규모 연구소입니다. 연구설비와 인프라, 해양자원 활용(바이오텍) 및 보전연구, 기술사업화, 항만·해양 안전 기술 개발 지원사업과 함께 연안 개발을 위한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린유겐트 코리아가 설립되면 세계 30위권의 겐트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해양 바이오, 해양 환경, 해양 식품 관련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 의약품, 탄소 감축 문제, 미세먼지 문제, 해양오염 문제, 해양 풍력이나 해양 조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나아가 해양 관광까지 전 분야에 걸친 명실공히 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관·학·연을 모아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통해 투자 및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겐트대학교가 남북평화 시대를 대비해 가장 최전선 기관으로 인천-강원 벨트와 북한-인천-부산-제주 남북해양 벨트의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 겐트대가 올해도 신입생 불학기 모집 정원을 100% 충원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입학 경쟁의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개교 첫해에는 신입생 모집이 저조했지만, 유럽의 명문 교육 품질을 유지해온 결과 학생들이 생명공학 분야의 인재로 성장해서 졸업 후엔 유수의 국내외 기관으로 취업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어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의 바탕에는 전공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되는데 졸업 시 학생들은 영어 구사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글로벌 인재로 평가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전공 이론과 이를 활용한 많은 실험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로 양성되고 있어 취업 기관에서 재교육이 필요 없는 글로벌 인재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과정에서도 학부에서의 많은 이론과 실험 실습 경험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과 높은 취업(진학)률 등이 신입생들에게 확신을 줘 입학경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겐트대 입학 시 재학생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겐트대학교는 졸업 이수학점이 240학점으로 국내 대학 대비 약 100학점이 많습니다. 수업의 50% 이상이 실험·실습으로 이루어진 연구 현장 중심의 교육입니다. STEM 중심의 100% 영어 수업이 진행되어 원어민과 같은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국내 대학 내 연구시설과 차별된 최첨단 교육 및 실험실습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공수하여 구축한 국내 최초의 자동화 스마트팜 온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최첨단 ICT 융합기술 시설로 식물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와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의 교외 인턴십과 교내 Intensive Research Training Program(IRTP)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부생도 국책연구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본인의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겐트대학교 졸업생의 누적 평균 취업률(대학원 진학 포함)은 94.2%입니다. 졸업생의 65% 중 90% 이상이 공인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이내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으며 졸업생 중 35%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 및 세계적 유명기업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 기반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재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기관에서도 호평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1~2학년을 공동수업으로 진행한 뒤 3학년에서 전공을 선택합니다. 1~2학년 때 각 전공의 개론 수업을 듣고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겐트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Q — IFEZ 내에 자리 잡은 글로벌 캠퍼스라는 점에 있어 특별한 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장단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천에 캠퍼스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알려주십시오.

먼저 장점은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국내외 대기업 등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사업과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 전공이 일치합니다.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트에는 관련분야의 선진 연구와 기술, 그리고 우수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충족하고자 겐트대학교가 유치됐고, 지속적으로 생명공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이 EU의 역외 3대 수입국이 될 정도로 EU와 다방면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EU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한 유럽 이학사 학위를 수여 받는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대한민국과 유럽의 교량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인재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 조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 인천대 재직 당시 국립대인 인천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 Joint Campus를 만들기 위해

유럽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던 중에 친분이 두터운 겐트대학교의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에게 뜻을 전달하였는데 겐트대학교 경영진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겐트대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PT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인천글로벌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초빙되도록 연결하여 2014년 9월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되었습니다.

Q — IFEZ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여 최첨단 지능형 농장 단지 조성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겐트대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자동화 스마트팜 온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지요?

국내에 구축된 스마트팜이 1~2세대라면 겐트대학교에서 연구 중인 스마트팜은 6세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선진 스마트팜 관련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충청북도 증평군과 스마트팜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스마트팜 하드웨어 구축과 시설 운영을 위한 IT 융복합 운영시스템, 그리고 증평군의 기후와 환경에 최적화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 선정 등 스마트팜 전 분야에 걸친 사항입니다.

증평군 스마트팜 컨설팅을 시작으로 겐트대학교는 스마트팜 관련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들의 집대성을 통해 시간과 비용, 노동력을 절약하고 생산을 극대화한 모델을 개발하여 노령화와 인구소멸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청년 농부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 마지막으로 IFEZ 저널 독자분들과 겐트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는 대학이 종착점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하는 '시작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출발점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겐트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며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인재로 함께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BUSINESS TREND

바이오제약 혁신과 시너지를 주도하는

바이오클러스터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에 나섰다.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모여 있는 송도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인력 양성을, 남동산단은 바이오 원부자재와 소부장산업 중심, 영종도는 바이오 산업용 부지 확장과 바이오제품의 수출입에 필요한 유통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글. Don Southerton
(CEO of Bridging Culture Worldwide)

R&D와 제조 리소스, 전문 지식 및 인재를 제공하는 허브

전 세계 바이오 제약 회사는 분자 개발을 실험실에서 임상 단계로 발전시키고, 시장 출시를 가능한 앞당기고자 한다. 이 과정은 제품 품질, 프로세스 효율 또는 환자 안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은 비즈니스 계획, 세포주 개발, 프로세스 개발, 기술, 규제 및 위험 평가의 복잡성을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소스, 전문성, 그리고 인재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활약이다. 특히 바이오 제약 허브는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필수적인 연구 개발 활동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세포주 개발, 배지 스크리닝, 클론 선택,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개발, 200L 전임상 연구를 위한 소규모 생산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춘 바이오 제약 스케일업 실험실이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브에는 대규모 제조 시설과 엔드 투엔드 바이오의약품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글로벌 생물학적 제제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동시에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바이오클러스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코벡, 얀센제약,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넥스 등 업계를 선도하는 제약회사들이 그러한 예 이다.

한편, 아태 지역에서는 화이자, 노바티스, MSD, 사노피, 애브비, 암젠과 같은 제약 업계 리더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조 허브도 구축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또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생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
위탁생산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의 혁신적인 의약품 제조를 지원합니다. 상업 생산, 의약품 개발, 제형 개발, 방법 개발, 사전 제형 및 등록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강점은 역시 생산 능력에 있다.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56만 리터로 샌프란시스코(44만 리터), 싱가포르(27만 리터), 아일랜드(23만 리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마지막으로 세포 배양으로 제조되는 바이오 의약품은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변질되기 전에 수출입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온 보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냉장 및 냉동 물류 운송 요건은 공항이나 항구에 인접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첨단 물류시설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한국의 놀라운 입지 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냉장 보관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섭씨 2~8도(화씨 36~46도) 범위의 저온 보관을 말합니다. 유통기한 동안 약품의 효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온 저장 기술은 IFEZ 내에 위치한 송도의 슈퍼프리즈(<https://superfrz.com>)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아시아의 식품 및 제약 산업에 지속 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편, 그린필드 부지에 바이오 클러스터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린필드(Greenfield)란?
그린필드는 이전에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 말 그대로 녹지에 건설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녹지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green”은 “새로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린필드는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린필드 개발은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윤원석 IFEZ 청장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송도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남동산단-영종지역을 잇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단 전략 생명공학을 보유한 기업들이 입주한 송도는 정부의 산업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과 아태지역의 클러스터는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여 두 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와 고숙련 일자리가 포함되며, 지방 정부는 국내 및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 및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FEZ 내 인구통계 현황 (2023년 4월 말 VS 2024년 4월 말 기준현황 비교)

꾸준한 유입과 꾸준한 상승 IFEZ 내 인구현황을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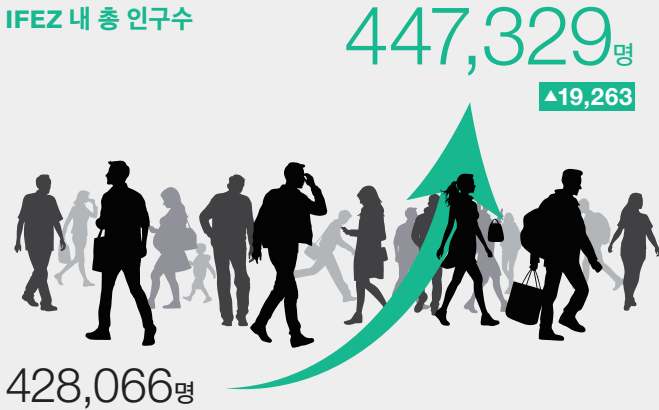
1. IFEZ 내 총 인구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IFEZ 내 2023년 4월 말 인구통계현황과 2024년 4월 말 인구통계현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1년이 지난 지금 총 인구는 △19,263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송도는 △9,981명 증가, 영종은 △8,462명 증가, 청라는 △820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58,667명	62,883명	▲9,621
여자	54,629명	58,875명	▲9,642
세대	169,739세대	179,076세대	▲9,337

IFEZ 내 총 인구수



IFEZ 내 지역별 인구수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114,259명	115,079명	▲820
남자	56,732명	57,163명	▲431
여자	57,527명	57,916명	▲389
세대	42,666세대	43,875세대	▲1,209
	113,296명	121,758명	▲8,462
남자	58,667명	62,883명	▲4,216
여자	54,629명	58,875명	▲4,246
세대	53,513세대	57,927세대	▲4,414
	200,511명	210,492명	▲9,981
남자	98,412명	103,386명	▲4,974
여자	102,099명	107,106명	▲5,007
세대	73,560세대	77,274세대	▲3,714

IFEZ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도부터 영종, 청라에 이르기까지 유입인구는

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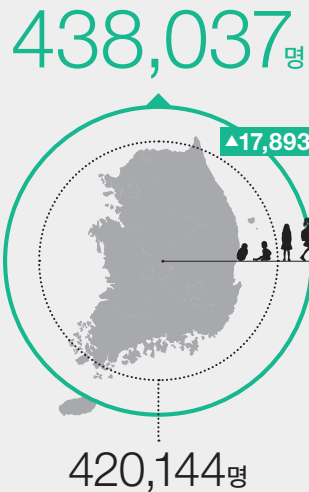
IFEZ 내 인구와 현재 IFEZ 내 인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자.

2. IFEZ 내 한국인 인구수에 있어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IFEZ 내 한국인 인구수



남자	210,148명	219,058명	▲8,910
여자	209,996명	218,979명	▲8,983

IFEZ 내 지역별 한국인 인구수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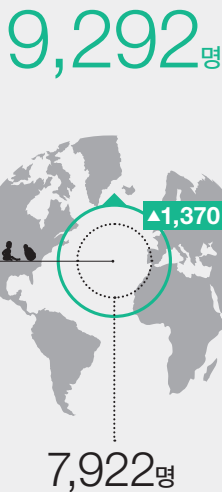
송도	195,747명	204,944명	▲9,197
남자	96,222명	100,856명	▲4,634
여자	99,525명	104,088명	▲4,563
영종	111,278명	119,322명	▲8,044
남자	57,733명	61,714명	▲3,981
여자	53,545명	57,608명	▲4,063
청라	113,119명	113,771명	▲652
남자	56,193명	56,488명	▲295
여자	56,926명	57,283명	▲357

IFEZ 내 한국인 인구수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 한국인 인구수는 △17,893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남성 인구는 △8,910명 여성 인구는 △8,983명이 증가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송도는 △9,197명이, 영종은 △8,044명이, 청라는 △652명이 증가했다.

3. IFEZ 내 외국인 인구수에 있어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IFEZ 내 외국인 인구수



남자	3,663명	4,374명	▲711
여자	4,259명	4,918명	▲659

IFEZ 내 지역별 외국인 인구수

(’23. 4. 말 기준 vs ’24. 4. 말 기준)

송도	4,764명	5,548명	▲784
남자	2,190명	2,530명	▲340
여자	2,574명	3,018명	▲444
영종	2,018명	2,530명	▲418
남자	934명	1,169명	▲235
여자	1,084명	1,267명	▲183
청라	1,140명	1,308명	▲168
남자	539명	675명	▲136
여자	601명	633명	▲32

IFEZ 내 외국인 인구수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2023년 말에 비해 △1,370명의 외국인이 IFEZ로 유입되었으며 그 중 남성 인구는 △711명 증가, 여성 인구는 △65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송도는 △784명 증가, 영종은 △418명 증가, 청라는 △168명 증가로 IFEZ 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메타 뮤직 시스템, 버시스(VERSES)

뮤지션과 직접 교류하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만나다

가상공간에 만들어진 뮤지션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음악 테마를 탐험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면 인공지능이
자신만의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CES 2023 최고혁신상에 빛나는
버시스의 메타 뮤직 시스템을 지금 만나보자.



버시스(VERSES), 다양한 메시지를 음악에 담다

스타트업 파크 내 입주하고 있는, '버시스'는 사용자 주도 음악 경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뮤직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버시스'라는 이름은 음악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을 뜻하는 '벌스(vers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음악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모두 음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버시스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엔비디아), 한국콘텐츠진흥원 ICT 뮤직테크 고도화 사업 선정, CES 2024 혁신상(비트 기반 AI 뮤

직비디오 제너레이터) 선정, 2023년 유니버설 뮤직 그룹 부트캠프 4개 협력기업 선정(Music Tectonics 2023) 등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각종 수상의 명예를 안은,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다양한 메시지를 음악에 담기 위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버시스는 메타버스 시대 음악을 시로 재정의 하였고, 이제는 뮤지션과 직접 상호 작용하며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버시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다.

1, 2
스타트업다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기업, 버시스



YouTube

IFEZ 유튜브에서
버시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뮤지션과 직접
교류하다,
Meta Music
System!

2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쳐
제페토에 정식
출시된,
에스파 월드



제페토에 에스파월드를 세우다

음악이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뮤지션과 직접 교류하고, 가상 세계에 구현한 음악 테마를 탐험할 수 있어 좀 더 입체적으로 뮤지션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시작하게 된 버시스는 에스파의 미니 4집 앨범 출시에 맞춰 에스파의 세계관과 타이틀곡 ‘DRAMA(드라마)’ 음원 등이 어우러진 ‘에스파 월드’를 구축했다. 이에 제페토 ‘에스파 월드’에서는 에스파 음원, 의상, 헤어, 다양한 장신구 등을 제공해 유저(User)들이 에스파 세계관 속

메타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베타 서비스 기간을 마치고 7월에 상용화 된 에스파월드는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만 하는 음악 상품에서 좋아하는 스타와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되어 많은 팬들의 이목을 한 눈에 받고 있다. 그렇게, 음악 감상의 패러다임까지 변화되고 있다. 또한 버시스는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좋아하는 K-POP 스타와 직접 대화하는 등의 발전적인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이성욱
버시스 대표

안녕하세요. 먼저 <버시스>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버시스(Verses, Inc)는 사용자 주도 음악 경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뮤직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음악이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뮤지션과 직접 교류하고, 가상 세계에 구현한 음악 테마를 탐험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뮤지션의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버시스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초로 현실화했는데요. 특히 새로운 음악 상품, 메타 뮤직 시스템을 개발해 듣기만 가능하던 기존 음악 경험을 만지고 갖고 노는 놀이이자 재창작의 과정으로, 음악 감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입니다.

<버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중점을 둔 대표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기 있는 스타들의 음악 세계를 메타버스나 VR 미디어에서 음악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POP 스타인 에스파의 메타버스 음악 세상을 제페토와 함께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에스파 월드’라는 이름으로 24년 초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7월 초에 곧 상용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음악을 듣는 것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에스파 멤버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는 음악 상품에서 좋아하는 스타와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은 K-POP 스타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과도 협력하여 상품화 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와 음악을 접목시킨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VR 과 같은 가상 미디어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청각 위주의 음악 경험이 시각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영감에서 버시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엄청난 사업적 기회가 따라온다는 점도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을 겪으며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음악이 메타버스나 VR화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특허화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뮤직그룹, 구글,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여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공동 창업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 눈으로는 겨울 인천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인하대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전공의 학생들이 음악과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전시 중이었는데 그 미팅을 통해서 버시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우수한 학교들이 송도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또 송도의 우수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선택한 이유일 겁니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의 우수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사 이래 계속 송도국제도시에 버시스를 머무르게 하는 이유일 겁니다.

2024년도 하반기, <버시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하반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K-POP 스타와 직접 대화하고 또 스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등의 더욱 발전된 서비스



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치 애정하는 스타와 같이 생활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음악팬들과 스타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서비스라 항상 스타와 같이 있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충족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회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스타트업 협력사로 선정되어 올해 안으로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회사를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 자리잡았던 인천 송도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 외에도 구글 서울 캠퍼스에 사무실이 있지만 송도에 본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음악의 중심지인 LA나 뉴욕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더라도 가능하면 처음 창업자들이 만났던 인천에 계속 위치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인천스타트업파크도 공유오피스 형태로 갖추어서 꼭 사무실 입주가 아니라도 본사가 위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택 근무가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식을 만나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곳,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IFEZ 내 입주해 있다.
스타트업파크 정보부터 주요 이슈까지 지금 만나보자.



NEWS

스타트업 파크 주요 이슈

1

Viva Tech 2024
인천스타트업파크 5개사 참가 지원



IFEZ는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Viva Technology 2024(이하 VIVA TECH)에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 기업의 성공적인 전시 참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VIVA TECH는 2016년부터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박람회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5개사)은 통합한국관 내 전시부스 운영 및 데모데이 피칭-네트워킹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5개사 부스에는 전시기간 중 약 400명 이상이 방문, 미팅 진행(200건 이상)과 현장에서의 수출계약(3건), 글로벌 투자자와의 미팅(7건), 1건의 MOU 체결 성과를 올렸다.

심순옥 IFEZ 스마트시티과장은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VIVA TECH 2024에 인천 스타트업들의 뛰어난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시설안내 사무실, 회의실, 인스타Ⅰ(실증센터, 피칭연습실, 홍보관 등), 인스타Ⅱ(그룹코칭실, 오픈스테이션 등), 인스타Ⅲ(오픈준비중)

2

IFEZ·인천지방조달청
스타트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맞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이 인천지방조달청과 함께 스타트업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지난 2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벤처·혁신·우수제품 지정위한 조달청 전문가, 주요제도 매칭 △혁신 스타트업 육성 위한 조달청 지원 프로그램 연계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지원 위한 조달청 공공구매, 설명회 연계, 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의 기술 및 서비스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의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17개사 스타트업을 선정하였으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과 공공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추진하여 판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IFEZ 커뮤니티 소식 한 눈에 보기

IFEZ 내에는 UN 국제협력기구부터
인천글로벌캠퍼스(IGC),
IFEZ 글로벌센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한다. IFEZ를 이루는
커뮤니티들의 소식을 지금 만나보자.

ISSUE
1

산학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목적
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FEZ)과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는 지난 6월 13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석 IFEZ 청장과 그레고리 워싱턴(Gregory Washington) 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 로버트 매츠(Robert Matz)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요 분야(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사이버보안, AI, ICT 등)의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협력 △인재 육성 요구에 맞는 추가 프로그램 개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시설과 자원 활용 △미국 기업 연계 등이다. 이밖에 미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 총장은 “올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인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및 기업과의 협력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원석 IFEZ 청장은 “그간 10년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성장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국 캠퍼스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조지메이슨대학교와 인천 지역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첨단 분야에 대해 산학협력으로 확대 발전하고 특히 조지메이슨 본교를 통해 인천과 버지니아주 간 다양한 학생 및 스타트업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 고 밝혔다.



ISSUE
2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IFEZ 글로벌센터 ‘강화도 역사탐방’ & ‘템플스테이 체험’

IFEZ 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탐방과 템플스테이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5월 30일 진행된 ‘IFEZ 외국인 강화도 역사탐방’ 행사에는 IFEZ 거주 외국인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등사 고려 궁지 등 강화도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동안 인천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IFEZ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및 예불·명상·공양 등 불교문화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체험비의 50%를 지원했다.

한편 IFEZ 글로벌 센터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기획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강화도 역사탐방 △템플스테이 체험 외에도 △한국어 강의 프로그램 △외국인 도예 체험행사 △김장체험 및 나눔행사 등을 진행하며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도 역사탐방 이모저모

템플스테이 체험 현장 이모저모



뜨거운 여름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 : IFEZ 전망대 투어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만나는 IFEZ는 어떤 모습일까. 뜨거운 여름, 탁 트인 시원한 풍경을 마주하고 싶을 때 방문하면 좋을 IFEZ 전망대들을 소개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IFEZ를 지금 만나보자.

송도 IFEZ 홍보관 전망대

시설안내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33층

면적 1,269㎡ (384평)

운영시간 화-금 10:00~21:00 (월요일은 정기휴관일)

※ 입장 마감 : 20:30 / 폐장 시간 : 20:50

휴관일 정기휴관 : 매주 월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공휴일(1/1 새해, 설 추석연휴)

임시휴관 : 시설보수 / VIP행사 진행시

주요시설 전시관, 전망존, 디지털 미디어 영상관 등

입장 무료관람

※10인 이상 단체 방문시 온라인 예약 필수



높은 곳에 올라 송도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G타워 33층 IFEZ 홍보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다. 높이 157.9m에 전면이 유리로 둘러싸인 전망대에서는 국제업무지구와 센트럴파크 등 높은 시선에서 바라본 송도의 전경을 만나볼 수 있다. 낮 풍경 뿐만 아니라 IFEZ 홍보관 전망대에서 만나보는 아름다운 일몰과 화려한 야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IFEZ 홍보관 전망대는 인트로존, IFEZ의 기반, IFEZ의 역사, IFEZ의 내일 등으로 구성되어 IFEZ의 기반에 대한 전시를 시작으로 미래 모습까지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다. 또한 IFEZ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부터 송도국제도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전상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미디어 콘텐츠까지 만나볼 수 있다. IFEZ 홍보관 전망대는 G타워 1층에 위치한 안내데스크 원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3층까지 단 10초면 오를 수 있다.

#G타워

#IFEZ_홍보관

#송도_전경



IFEZ 홍보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센트럴파크



IFEZ 홍보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도 야경



#청라도
#서해일몰
#아라타워

시설안내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1로 41

운영시간 전망대 : 06:00~21:00 (연중무휴)

홍보관 : 09:30~17:30

(1월 1일, 명절 당일 휴일)

주요시설 홍보관, 전망대 등

입장 무료관람

청라 아라타워 전망대

서해의 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동쪽에는 정동진이 있다면, 서쪽에는 정서진이 있다. 정서진의 일몰을 한 눈에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면 바로 아라타워 전망대가 아닐까. 아라타워 전망대는 청라도 아라빛섬 여객부두 통합 운영센터인 아라타워 23층에 위치해 있는 무료전망대다. 전망대는 서해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며, 정서진 공원과 함께 서해바다와 인천대교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다. 경인아라뱃길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볼 수 있고, 1층에 위치한 아라리움 홍보관에서는 모형배에 직접 탑승해 운전해보는 체험부터, 아라뱃길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 볼거리를 더한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청라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지금 아라타워로 떠나보자.



영종 용유 하늘전망대

시설안내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28-48

주요시설 전망대 등

입장 무료관람

#잠진어화

#용유8경

#일출일몰

거잠포 선착장과 함께 코스처럼 둘러보기 좋은 전망대가 영종에 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거잠포 선착장의 모습부터 무의도 등 탁 트인 영종도를 한눈에 만끽할 수 있는 멋진 풍경이 나타난다. 용유 하늘전망대는 앞바다에 상어지느러미 모양의 매도랑과 사렴도 등이 있어 풍경이 아름다우며 특히 일몰뿐만 아니라 매도랑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과거에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고기잡이 철이면 배에서 밝인 불로 불야성을 이뤄 장관을 연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야경을 '잠진어화'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또한 용유 하늘전망대는 용유 8경 중 6경에 해당하는 장소로 현재는 송도신도시부터 인천대교, 인천공항의 야경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한 번쯤 꼭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트센터인천의 여름

What's on?

무더운 지금,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아름다운 공연들로 가득 채워질 아트센터 인천.
여름밤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2024 클래식 에센스 II <슬라빅 웨이브>’와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어린 예술가들의 공연,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Dreams Of Tomorrow>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여름의 what's on을 지금 만나보자!

여름밤을 채울 슬라브의 감성이 물씬 나는 음악
2024 클래식 에센스II <슬라빅 웨이브>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4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롭게 런칭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에센스> 두 번째 무대가 열린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애수 어린 선율과 이국적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곡은 러시아적 색채가 여실히 드러나는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다. 독일 프랑크프루트 방송교향악단의 제1종신악장이자 뛰어난 연주력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플로린 일리에스쿠(Florin Iliescu)가 협연한다.

공연명 2024 클래식 에센스II <슬라빅 웨이브>
공연일시 7월 19일(금) 19:30
공연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내일의 꿈을 노래하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Dreams Of Tomorrow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지난 4월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조현경 상임지휘자의 취임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Dreams of Tomorrow>라는 테마를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어린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이와 더불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콰이어그룹 IMCCC(Incheon Metropolitan City Children's Choir)가 음악극 'K-POP Fantasy'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뜨거운 열정과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트센터 인천에서 만나보자.

공연명 Dreams Of Tomorrow
공연일시 7월 20일(토) 17:00
공연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티켓가격 전석 무료(사전 예매)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아트센터 인천 보기만해도 시원한
7-8월 공연을 만나보세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V



공연일정 7월 18일 (목) /
8월 15일 (목) 19:30
관람시간 11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옥탑 재즈 II



공연일정 7월 26일 (금) 19:30
관람시간 90분(인터미션 없음)
티켓가격 전석 2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공연일정 7월 28일 (일) 17:00
관람시간 약 120분 예정
티켓가격 VIP석 9만 원,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
관람연령 6세 이상

ACI 키즈 콘서트
— 클랩 그림책 콘서트 II



공연일정 8월 17일 (토) 15:00
관람시간 50분(인터미션 없음)
티켓가격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썸머 무비 콘서트



공연일정 8월 18일(일) 19:00
관람시간 약 120분 예정
티켓가격 VIP석 11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관람연령 5세 이상

토요스테이지
<모두가 아는 클래식> III



공연일정 8월 24일 (토) 17:00
관람시간 110분
티켓가격 R석 3만 원, S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달의 CONVENSIA!

유엔 공공행정포럼 6월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돼

각국의 공공행정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인 유엔(UN) 공공행정포럼이 지난 6월 24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유엔공공행정포럼은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해 회원국의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행정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이자, 한국에서 진행된 고양 포럼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국 2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인공지능(AI)과 정부의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와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등이 개최됐다. 이와 함께 유엔존과 한국존(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과 한국 관광 홍보·체험 등 문화 체험형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4. 7.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전시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 2024 인천 베이비페어 • 2024 카페디저트페어		
	8	9	10	11	12	13
						제17회 아리엘페스티벌
14	15	16	17	18	19	20
						• 2024 케이다트 페스티벌 • 2024 인천 국제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21	22	23	24	25	26	27
					• 2024 케이펫페어 송도	
28	29	30	31			

추억을 공유하는
일상한컷

IFEZ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송도·영종·청라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하루, 지금 만나보세요.

송도 조경희




알록달록 예쁜 장미가 피어나는
6월의 예쁜 하루 ♡
#송도해돋이공원 #장미 #송도

송도 김미정




송도 롱비치 파크에서 커피 한 잔~!
노을과 함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송도롱비치파크 #노을 #송도

영종 이상민




아직은 덜 뜨거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유!
#을왕리해수욕장 #바다 #영종

영종 이하루



딱! 여름느낌 나는 청량한
바다사진 담으러 영종도로 고!
#공항근처 #여름사진 #영종

청라 정미숙



빨갭게 핀 아름다운 장미보러
다녀온 청라호수공원 :)
#청라호수공원 #로즈가든 #청라



IFEZ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마감 2024년 8월 5일(월)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지난호 당첨자 조경희 김미정
이상민 이하루 정미숙

※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LANDMARK
QUIZ

IFEZ를 알아가는 랜드마크 퀴즈

IFEZ를 더 신나고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은 후 정답을 맞춰보세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국내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글로벌 교육허브 조성을 위해 조성한 해외대학 공동캠퍼스(한국뉴욕주립대학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다. 특히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송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정학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관련 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되어 있다.

Quiz 1.

빈칸에 들어갈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IGC ② INC ③ IFC ④ IGO

Quiz 2.

위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4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②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송도와 청라 두 곳에 위치해 있다.
③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조성한 글로벌 교육허브다. ④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관련 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되어 있다.

마감 2024년 8월 5일(월)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지난호 당첨자 이명표 조예원 한재임 이하현 장보숙 구근형

※ 정답,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